

# 냉전시대 북한의 ‘주체적’ 서양역사 만들기 - 《력사사전》(1971) 분석을 중심으로

육영수(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지식분류는 권력의 행사이다.

지식체제를 근본적으로 (재)분류·정돈하는 작업은 정보와 이념 사이의 역학관계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그러므로 어느 곳 어떤 시대에서든 ‘표준지식사전’을 기획하고 간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상업적 차원을 넘어서는 주목할 만한 정치문화적인 사건이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일단의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백과사전’을 편찬하여 앙시앵 레짐에 대한 철학적인 혁명의 포문을 열었듯이, 앞의 대한 총체적이며 종합적인 (재)규정은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비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푸코가 ‘담론-권력’ 개념으로 설명하듯이, 힘의 원천이며 현실개조의 지침이 되는 지식의 범주와 종류 및 그 주요 내용 등을 결정하는 주체는 권력자 혹은 국가이다. 그-주인, 의사, 교사, 공무원 등-는 승진과 휴가, 건강과 장수, 취업과 장학금, 복지와 연금 등을 약속하면서 피지배자들의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참여와 복종을 유도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펼치는 사전편찬사업도 지배계층의 부름과 동원에 추호의 의심 없이 헌신하려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종이라는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백과)사전편찬을 통한 ‘담론-권력’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건국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은 사전류 편찬사업을 수행해 왔다. 기존의 낡은 지식에 대한 근본적이며 총체적인 해체와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사전편찬사업은 《철학사전》, 《력사사전》, 《정치사전》 등이 집중적으로 선보였던 1970년대 초가 전성기였다. 대형사전의 기획과 집필이 적어도 5년~10년의 시간을 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960년대 초중반부터 모종의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지식체제의 분류, 정의, 분석, 평가사업에 열중해 왔던 것이다. 북한당국은 과연 어떤 시대적 배경과 정치경제적 조건 및 이데올로기적 의도에 따라 사전편찬사업을 ‘위로부터’ 독려하고 준비했을까? ‘공인된 국가담론’의 밑천이며 동시에 ‘생산하는 학문권력’으로 작동하는 사전의 편집·분류체제와 형식과 내용 뒤에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편린이 숨어 있을까? 북한당국의 지침에 따라 세상에 나온 사전류들이 그들의 ‘권력의 눈’을 통해 계몽 혹은 감시하고 처벌하려던 대상은 무엇이였을까? 1964년에 창설된 사회과학원 산하 ‘력사연구소’가 편찬·간행한 《력사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에 초점을 맞춰 이런 의문들에 대답의 실마리를 모색해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북한의 역사가들은 본질적으로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에 국가와 인민에 복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향한다. 해방 직후의 혼란과 어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48년에 ‘조선력사편찬회’라는 최초의 학술단체가 결성되었고 기관지 성격의 학술지인 《력사제문제》가 간행될 만큼 애초부터 북한에서는 ‘역사 쓰기’를 ‘국가 세우기’와 동일시했다. 이런 신성한 과업을 실천하기 위해 북한 역사가는 “개인 취미 본위적인 수공업적 방식과 산만성”에 함몰된 부르주아적 역사연구방식을 극복하고, “집체적 연구와 호상 협조와 동지적 방조의 작품”을 지향했다. 특히 아직도 많은 ‘낡은 인테리’ 혹은 ‘글 뒤주’들이 탈피하지 못하는 복고주의와 허무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당성원칙’과 ‘력사주의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역사연구가 절실하다고 한 북한원로 역사가(김석형)는 주장했다.

《력사사전》이야말로 위에서 언급한 북한역사학의 특징-혁명과업으로서의 역사서술과 학문적 집체주의 작업형태-을 웅변적으로 대변한다. 머리말에서 밝히듯이, 《력사사전》은 북한 근로자에게 “우리나라 력사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내외반동적 어용사자들의 외곡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기획·편집되었다. ‘철저한 주체성’, ‘당성’, ‘로동계급성’, ‘엄밀한 과학성’ 등의 4대 원칙에 입각해서 사전에 등재될 ‘올림말’이 선정되었고 내용서술에도 이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었다. “근로자들에게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 걸치는 상식을 넓혀주며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줌으로써…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 더 잘 이바지”하는데 길잡이가 되는 백과사전에 선행하는 ‘부문별사전’의 편찬을 격려한 김일성의 1964년 교시에 충실한 결과물 중의 하나가 《력사사전》이었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인민들에게 고취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력사사전》에 요청된 것이다.

《력사사전》은 상권 993면과 하권 1,429면을 합쳐 총 2,422면과 총 3,402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항목 중에서 한국사 항목이 2,910개로 85.5%, 그 외에 세계사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이 492개로 14.5%를 차지한다. “조선력사 올림말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나라 역사 올림말은 추려서” 선별하였다는 ‘일러두기’의 기본원칙을 준수한 셈이다. 10개 중 8.5개 비율로 한국사 관련항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견지해 온 일종의 ‘우리 역사 우선주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웃나라와 먼 나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조선역사를 ‘주체적으로’ 더 잘 이해하는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는 조건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조선사의 특수한 길’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나 보조분야로서 다른 나라 역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북한 특유의 세계사관이 양적으로 빈약한 세계사항목선택으로 표출된 것이다.

세계사 항목을 그 지리적 위치와 이슈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재분류하면, 서양사 265 항목(54%), 동양사 173 항목(35%), 동서양 비교사 54항목(1.6%)으로 나누어진다. 서양사 항목이 동양사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한국현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양제국주의 침략사와 북한체제의 이념적 뿌리에 해당하는 서양에서 발생·발전했던 유물론적 사회주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사로 세분된 항목에는 주로 약소국가(피식민지국가)들이 펼쳤던 반봉건적·반제국주의적 투쟁이나, 서양열강(특히 미국)이 제3세계국가들을 약탈, 침략하는데 관여했던 인물, 조약, 전쟁 등이 포함된다.

위와 같이 통계적으로 분류되는 《력사사전》에 게재된 서양사 관련 항목들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당시 북한당국은 ‘서양’ 혹은 ‘서양문명’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파악했는가? 그들이 진단하는 서양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며, 서양문명의 흥망성쇠의 거울에 비친 북한사회의 자화상은 무엇일까? 서양의 특정국가와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주체적’ 평가와 비판의 화살이 겨냥하는 과녁의 중앙은 어디일까? 이런 의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필자는 《력사사전》의 서양사 항목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평가와 ‘역사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올바름’을 주관적으로 판정하려는 유혹을 삼키려고 한다. 그 대신, 기본분류체제를 해체하여 관련 항목들을 재배치, 재구성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상호 갈등, 충돌하고 때로는 어긋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자 한다. 지식과 개념에 대한 분류, 배치, 짝짓고 대비하기 등이 사전 편찬의 본질이라면, 그렇게 형성·고착된 ‘책의 질서’를 흐트리고 농단하는 작업이야말로 비평적 이해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II. 세계사는 사적 유물론으로 움직인다, 아직은.

《력사사전》에 기재된 다양하고도 복잡한 역사적 사건, 전쟁, 조약과 역사적 인물 등을 선별하는 만능키는 역사적 유물론이다. 이 만능키는 자본주의 붕괴와 사회주의 승리라는 두 짝의 열쇠고리로 구성되며, 앞의 단계가 뒤 단계로 점화·승화되도록 도와주는 연결고리기능을 제국주의론이 담당한다. 북한의 ‘궁전 역사가들’이 김일성의 지침에 따라서 대략 5-6년간의 기획과 준비단계를 걸쳐 《력사사전》을 완간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한국전쟁의 파괴와 상흔을 복구한 북한이 1960년대 중반부터 국민통합과 제2건국의 이데올로기로서 역사적 유물론과 반(미)제국주의론으로 재무장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리고 반미제국주의 역사관을 강화하려는 사상무장운동의 달음박질 과정에서 ‘조선역사의 특수한 길’을 강변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태동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역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관찰하면, 세계사는 그 여명기부터 주인과 노예, 가진자와 못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된다고 《력사사전》은 밝힌다. 세계문화유산도 계급투쟁의 증표이며 산물이다. 고대이집트 왕국의 ‘피라미트’가 “피압박인민들을 혹사하여 만들어 낸 큰 무덤”(II-921쪽)으로서 지배계층의 악랄함의 살아있는 증거라면, 고대중국의 ‘돈황석굴’은 “중국봉건시대 통치배들이 저들의 계급적 지배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들을 기만하여 착취 억압하는데 리용되었던 불교의 대표적인 절간의 하나”(I-527쪽)이다. 또한, 모든 국가와 제도의 존재이유와 그 역사적 당위성을 측정하는 준거 틀도 유물사관에서 바탕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흔히 서양민주주의의 모델이며 출발점으로 알려진 ‘고대희

랍'은 소수의 귀족이 하층자유민과 노예를 계급적으로 착취한 '노예소유자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며(I-104쪽), '12동판법'은 그 본질상 "고대 로마의 노예제를 법적으로 고정화한 초기 성문법"(II-200쪽)이라는 계급적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력사사전》은 강조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서양 근현대사의 전개와 발전패턴도 봉건제도의 종식과 부르주아지 계급의 성장과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도래로 구현된다. 《력사사전》에 묘사된 르네상스에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서양사 흐름의 여울목과 그 주요특징을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16세기 서부 구라파에 출현했던 '조기부르주아문화'였던 문예부흥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인도주의를 기본내용으로 했지만 "그들이 주장한 '개성의 해방'은 오직 부르주아적 개성의 해방을 의미하였다."(I-824쪽) 르네상스의 기본정신을 계승하여 17세기에 발생했던 '영국부르주아혁명'은 "세계의 첫 부르주아혁명"으로서 "부르주아지의 상층과 새 지주놈들의 리익을 옹호하였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무시"함으로써 "은폐되어 있던 종교적 착취를 공공연하고 과렴치한...부르주아적 착취체도로 바꾸어 놓았"다.(II-1225쪽)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대중적 농민수탈방법"이었던 '울치기' 운동으로 자본주의적 부농이 출현함에 따라(II-918쪽) "근로인민에 대한 무제한의 착취에 기초한 부의 독점" 체제를 가능케 한 산업혁명이 발생했다. 그 결과, 자본가와 노동계급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노동운동이 성장했고 마침내 18세기말 프랑스에서는 "봉건적 절대주의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자본주의 제도를 설립한"(II-918쪽) '프랑스부르주아혁명'이 발발하였다.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미완성으로 마감되었던 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부르주아적 군주제도'를 잉태한 1830년에 '프랑스 7월혁명'으로 부활했다.(II-918쪽)

7월혁명 이후의 서양사는 노동계급의 성장과 사회주의의 승리로 구현되었다. 1830-40년대에 영국에서 발생했던 차티스트운동은 "정치적 성격을 띤 로동계급의 첫 대중적 투쟁"(II-732쪽)의 역동성을 과시했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은 1848년 '프랑스 6월폭동'은 "로동계급과 부르주아지들간의 첫 공민전쟁"으로서 "로동계급의 계급적 각성을 급속히 높였으며...구라파 나라들의 로동운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II-917쪽) 그리고 축적된 혁명경험으로 무장한 프랑스 노동계급은 1871년에 "세계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던 '파리콤문'을 선포하여 "인류력사상 첫 로동계급 정권"을 수립했다. 파리콤문이야말로 "그때까지 이론적 명제로만 남아있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맑시즘의 가르침이 옳으며 자본주의의 멸망을 알리는 첫 신호였다."(II-1131쪽) 프랑스 노동계급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지퍼왔던 혁명적 불씨는 재정러시아에서 결정적인 열매를 맺었다. '1905년 로씨야혁명'으로 "로동계급만이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령도자가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배운 러시아 인민들(II-741쪽)은 1917년 혁명으로 인류 역사상 첫 사회국가인 소비에트연방을 출범시켰다. 식민지재분할과 시장쟁탈을 위한 제국주의적 약탈전쟁으로 시작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자본주의 전반적인 위기와 첫 사회주

의 국가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II-711~712쪽)

위에서 스케치 한 것처럼, 공산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 승리를 향해 일목요연하게 전개되는 세계사에서 기록할 가치가 있는 대상은 역사적 유물론의 완성을 위해 희생하고 투쟁했던 인물과 사건이다. ‘이와일로 농민폭동’(1277-1280년 벨가리아에서 목동 이와일로와 자도 밑에 일어난 농민폭동, II-1331쪽), ‘윗트 타일러 폭동’(1831년에 영국에서 봉건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일어난 농민폭동으로 농노제 붕괴를 촉진시킨 사건, II-142쪽), ‘루베르뛰르 투쟁’(하이티 흑인노예폭동의 지도자, II-1126쪽), 게오르기 마하일로비치 지미프르브(“벨가리아 인민의 수령이며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탁월한 활동가, II-668쪽) 등과 같은 (‘남쪽’에서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에게는?) 다소 낯선 항목들이 《력사사전》에서는 세계사를 움직이고 변화시킨 중요한 기폭제로 부각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비심과 인간에 대한 초계급적인 사랑에 의존하여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계급적 제한성을 노출했던 ‘섹스피어’(I-218쪽), “부르쥬아지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과학을 연구”했던 뉴턴(I-454), “허위적이며 반과학적”인 관념론적 철학을 주창하여 “인민대중을 맹목적 집단으로 멸시”했던 헤겔(II-1081쪽), 작품을 통해 “인민대중의 힘의 원천과 그 투쟁의 영웅적 본질”을 밝히는데 미치지 못했던 베토벤(I-991쪽) 등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안티 위인(anti-hero)’으로 열거되었다.

《력사사전》에 등재된 서양사 관련 인물들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존경과 영광은 당연히 사적 유물사관의 창시자이며 ‘현실사회주의국가’ 건설의 이론적·실천적 혁명가였던 맑스, 엥겔스, 레닌과 스탈린 몫이었다. “자본은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나온다”(II-226쪽)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파했던 맑스가 “과학적 공산주의의 창시자이며 국제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I-769쪽)으로 찬양된다면, 그의 절친한 동지엥겔스는 “맑스 서거 후 국제로동계급의 공인된 수령으로서 온갖 반맑스주의적인 기회주의 사상조류들을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I-1388쪽)했던 인물로 칭송되었다. 레닌은 “제국주의는 기생적 자본주의이며 썩어가는 자본주의이며 죽어가는 자본주의”(I-236쪽)임을 폭로하여 러시아혁명을 성공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쏘련공산당과 쏘베트 국가의 창건자”(I-734쪽)로 이름을 빛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그 4인방 중 마지막 인물인 ‘스탈린’은 “레닌의 충직한 제자이며 그의 위업의 빛나는 계승자”로서 혁명의 배신자들과 인민의 원수들을 제거하여 “국제혁명운동과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남겼다”(II-1154쪽)고 《력사사전》 기록했다.

유물사관을 동력으로 삼아 영웅적 지도자들이 대를 이어 운전하는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열차가 역사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뿌리 깊고 으름가는 방해물은 종교라고 《력사사전》은 고발한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맑스의 가르침을 충성스럽게 복창한 것이다. “기원전 6세기 인도의 석가가 조작해 내었다는” 불교는 ‘인과응보설’, ‘해탈’, ‘극락세계’ 등의 개념으로 염세주의, 허무주의, 현실부정, 염세주의 등을 주창함으로써 “피압박 계급의 투쟁의식을 마비 시켰으며 통

치계급의 반동정치와 계급적 지배에 복무하였다.”(I-961쪽) 또한, "아라비아 메카시의 상인출신인 무함메드가 꾸며 낸" 회교는 “지키기 힘든 금령과 복잡한 의식과 규범들을 많이 정해 놓고 그의 엄격한 준수를 신도들에게 강요”(II-1081~1082쪽) 함으로써 지배계급들이 인민을 기만하고 억압 착취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력사사전》은 덧붙였다.

소위 세계3대 종교 중에서 가장 악질은 기독교라고 《력사사전》은 확신했다. “가상적 인물인 유대사람 예수”가 창시한 기독교는 “력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진보와 과학의 흉악한 원수로서…외래 자본주의침략자의 손발이 되었”(I-231쪽)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의 권력을 강화하고 피지배계급을 핍박하는 도구로서의 기독교의 역할은 신교와 구교의 구별이 없다고 《력사사전》은 역설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세계반동의 소굴’인 바티칸에 등지를 틀고 있는 ‘로마법왕’의 지시에 따라 “부르조야지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였고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파괴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었다.”(I-640쪽)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부상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충실했던 신교는 현재까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 부르조야지의 총복으로 충실히 복무”(II-168쪽)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많은 갈래들 중에서도 《력사사전》이 ‘감리교’를 “약소민족에 대한 침략도구”로 특별히 지목한 것은 이 종교가 19세기말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래 미국제국주의의 대표적인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 III. 미국은 악의 씨앗이고 중심축이다, 진짜로.

유물사관 외에 《력사사전》의 서양사 항목을 관통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준거틀은 제국주의이며 그 중심축에 미국이 위치하고 있다. 유물사관이 사전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담론이라면 반미제국주의는 서양사 항목 전체를 유기적으로 움아매는 접착제이다. 과장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미국제국주의가 필연적으로 망해야 할 역사적 정당성과 그것이 약속하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자유와 해방의 세계사적 의의를 독자들에게 선전하고 고취시키려는 것이 사전편찬의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정도로 반미감정은 매우 거칠고도 집요하게 《력사사전》의 구석구석에서 등장, 돌출된다.

《력사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미국은 (거두절미하고!) “북아메리카 대륙에 자리 잡고 있는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침략적인 제국주의 국가”이다. 동시에 “현대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조선인민과 전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수인 미제국주의가 통치하는 나라”(I-825쪽)이다. 미국의 통치자들은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국주의의 두목 놈의 소굴”(I-988쪽)인 백악관에 등지를 틀고 온갖 종류의 식민주의적 계략에 골몰한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제임스 몬로란 놈’은 ‘아메리카 사람을 위한 아메리카’라는 허울 좋은 구호로 위장한 ‘미국을 위한 아메리카’ 구축을 위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제 놈들의 독점적 지배를 확립하

여 략탈정책을 강화”했다.(I-108쪽) 백악관의 또 다른 주인이었던 ‘트루먼이라는 놈’은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나라를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정책”(II-855쪽)을 획책했다.

백악관 주인들이 진두지휘하여 선창하는 제국주의적 행진곡에 미국 특유의 정치제도, 자본주의 체제, 외교정책 등이 화음을 넣어 합창한다. 《력사사전》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적 대의민주제도의 상징적 전통으로 자랑되는 ‘량당통치제도’는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개의 지배적 정당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는 반동적 부르쥬아 통치체계”(I-613쪽)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의 ‘피바다’ 위에 건국의 깃발을 세운 미국의 경제발전은 태생적으로 악랄한 노동착취에 기반을 두었다. 고대 로마의 노예소유자적 대농장 경영형태였던 ‘라티퐀디움’ 제도를 현대판 흑인노예무역에 의존한 노동체제로 변질시킨 미국은 “가장 야만적인 착취제도로써 미국자본주의의 야수성을 또렷이 보여 주었다.”(I-602쪽) 심지어는, “‘문명’의 탈을 쓴 인간백정”이며 “날강도”인 미국은 “조선에서도 수많은 인민들을 ‘이민’이란 명목으로 하와이와 중남미 농장주 놈들에게 종신노예로 팔아먹는 야수적 관행을 감행하였다.”(I-438쪽)

위와 같은 미국적 자본주의의 배후에는 탐욕스런 독점재벌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력사사전》은 고발했다. “미제국주의의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금융과두정치를 조종하는 가장 큰 독점재벌들”로 록펠러 재벌과 모르간 재벌이 선별·지목되었다.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며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로 꼽히는 록펠러 재벌이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과 경제적 침략의 적극적인 고취자의 역할을 놓고 있”다면(I-648쪽), 모르간 재벌은 “근로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 식민지 략탈과 침략전쟁, 투기와 사기, 협잡 등으로” 탐욕스런 몸집을 날로 불리고 있다.(I-794쪽) 이런 노골적인 자본주의적 침략 외에도 “이른바 원조의 미명아래 남조선의 과학, 교육 부문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쳐 남조선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말살”(I-648쪽)하려는 문화적 제국주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력사사전》은 독자들에게 훈계했다.

미제국주의의 전 지구적인 팽창과 정복욕은 각종 기발한 외교정책의 후원 아래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 되었다. 애초부터 콜럼버스와 같은 “해적의 후손들인 미제국주의자들”은 ‘문호개방주의’라는 미명으로 자신들의 침략적 본성을 감추고 아세아에 대한 침략과 약탈을 감행했다.(I-823쪽) 때에 따라서는 “‘경제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들을 회유, 매수, 위협 공갈하는” ‘딸라외교 정책’도 병행했다.(II-1125쪽) 이런 당근정책이 통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미제국주의자들은 ‘특수전쟁’이라는 이름의 채찍을 꺼내 “제 놈들의 괴뢰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고문’격으로 참가하거나 혹은 선전포고 없이 자기의 ‘특수부대’를 파견”(II-855쪽)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마살안’이란 이름의 물량공세로 유럽에서 미국적 자본주의와 반공주의를 심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 말에는 극동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반영한 ‘까히라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여 온 세상 인민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이 ‘양가죽을

뒤집어 쓴 승냥이’라는 것”을 공개했다.(II-1113쪽)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미국제국주의자야말로 온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깡패요 세계질서와 평화를 어지럽히는 악의 축이라고 《력사사전》은 단언했다. 미국은 러일전쟁 후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일본 측에 유리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침략을 응원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군국주의적 파쇼정권이 부활하도록 방치했던 책임이 있으며, 세계의 탄약고 중동지역에서의 이스라엘-아랍전쟁을 도발했으며, 남아프리카에서 백인 인종주의자들을 지원했던 “자본주의 세계 범죄자의 소굴”이다. 그리고 “세계자본주의 금융시장의 중심지이며 악덕과 패륜, 자본주의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도시”인 뉴욕이야말로 총체적인 악의 화신인 미국제국주의의 본질과 한계를 집약적으로 대변한다. “수많은 실업자들과 거지들이 일자리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 뉴욕(I-455쪽)이야말로 미제자본주의의 말로를 예고한다고 《력사사전》은 증언한다.

한편, 《력사사전》에 등재된 국가별 항목내용도 사탄의 본거지인 미국과의 동맹 여부 및 친소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오지리 [오스트리아]'는 영구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제를 추종하며 미제와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을 맺은 “구라과대륙의 중앙부에 있는 자본주의나라”(II-1245~1246쪽)로 소개되고, ‘꼬스파리카’는 “미제의 가혹한 약탈과 이 나라 친미반동정부의 대미추종정책으로 말미암아 인민들은 항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자본주의 나라”(II-1113)로 규정된다. 이스라엘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손 때 묻은 앞잡이”가 “팔레스티나땅에 조작해 낸 유대인 국가”(II-1321쪽)이며, 우루과이는 미제와 쌍무적 ‘군사협정’을 맺어 미제에 예속된 후 1964년에 사회주의 동지인 쿠바와 외교관계를 끊은 나라로 기억된다.(II-1263쪽) 반면에, 칠레는 1970년에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에서 탈퇴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또 한 번 된 매를 안기었”던(II-811쪽) 나라로 기억된다.

마찬가지로, 국제기구의 성격규정과 평가에도 친미 대 반미라는 흑백논리가 적용된다. 국제연맹은 ‘미제국주의의 괴수인 대통령 월손이란 놈’이 “제국주의 나라들이 제 놈들 사이에 무제한적인 약탈전쟁을 ‘조정’하여…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I-197쪽) 내세웠던 국제기구였다. 그 속편에 해당하는 유엔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제간 친선강화와 교류확대라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운동을 탄압하고 약소국가들을 침략하는 미제의 침략도구로 이용 되고 있다”(II-1306-7쪽)고 《력사사전》은 공격했다. 또한 그럴듯한 명칭과는 달리 ‘진보를 위한 연대’는 “미국이 ‘원조’를 미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반 쿠바혁명을 교살하기 위해 1961년에 만든 반동적 경제기구”(I-682쪽)라고 서슴지 않고 비난했다.

전 세계를 미제와 한 통속인 ‘나쁜 나라’와 이에 저항하는 ‘좋은 나라’의 숙명적인 대결구도로 분할한 《력사사전》은 이런 양극체제하에서 북한이 수행하는 반제국



주의 투쟁을 과장된 자부심으로 내세운다.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랄리아 등의 공통점은 “미제가 도발한 조선침략전쟁 [한국전쟁]에 침략군을 보냈다가 조선인민(군)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수치스런 참패를 당”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집트 정부의 수에즈운하 국유화 방침에 반발하여 서양제국주의자들이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 평화애호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이들을 격퇴하고 “민족적 권리를 고수하였다”고 자랑했다.(II-152쪽) 국제무대에서의 ‘주체적인’ 활약상도 빼놓지 않았다. “미제의 조정 밑에 국제올림픽위원회 내의 일부 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이 국가대표선수단의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신에 ‘북조선’으로 변경하려는 책동에 “완강히 투쟁”하여 영예스런 나라이름을 기필코 수호했음(II-1255쪽)을 환기시켰다. 현대판 골리앗인 악의 중심축인 미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작지만 매서운 다윗으로 스스로를 동일시했던 것이다.

《력사사전》에 투영된 위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민족주의사관은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김일성 ‘주체사관’의 신호탄일까? 주체사관의 기원을 쫓는 일은 논문주제를 벗어나지만, 《력사사전》의 형식과 내용에 묻어있는 자취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주체사관이 당시에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항목 내용설명의 급소마다 굵고 진한 글자체로 김일성의 교시를 삽입하여 특정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해석적 논쟁의 여지를 없애려는 편집형식도 그런 증거 중의 하나이다. 또한, ‘찌또’의 영도력 아래 유고슬라비아가 펼쳐온 ‘독자적인 사회주의’에 보내는 유별스런 관심과 애정표현도 북한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주체적인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각오와 부러움의 표시가 아닐까.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평화공론’과 ‘빨리불가담’을 선언한 유고슬라비아가 1970년 유엔총회에서 ‘남조선’에서 미군철수를 요청하는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가장 ‘최근’ 뉴스가 《력사사전》에 기입(II-1303~1304쪽)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런 여러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력사사전》이 주체사관의 ‘결정판’은 아닐지라도 수집·분류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주체사관의 세계사적 당위성을 선언했던 ‘표준보급판’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과거는 ‘너’와 ‘나’의 거울이다

지나간 낡은 신문을 다시 읽는 것은 철지난 바닷가를 거닐며 옛 사랑의 추억을 추억거리는 것처럼 하릴없고 계면쩍은 일이다. 대부분 현실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된 지 20년이 지나고 ‘세계화’의 이름으로 팍스아메리카나가 구가되는 오늘, 거의 40년 전에 출간된 북한의 《력사사전》 읽는 것은 이와 유사한 감정을 동반한다. 당성과 계급투쟁의 선무(宣撫) 공작원으로서의 역사가들이 유물사관과 반미제국주의라는 두 붓으로 채색한 세계사의 만화경(萬華鏡)은 단조롭고도 쓸쓸하다. ‘거지와 실업자가 넘치고 타락한’ 파리, 런던, 뉴욕과 같은 자본주의 도시에 대한 판박이 안

내와 세계 각 나라 항목에 후렴구처럼 첨부된 “xx나라 인민들은 미제와 자본주의의 억압에 영웅적으로 투쟁중이다”라는 구절은, 속된 표현을 빌면, ‘보지 않아도 비디오’요 ‘척하면 삼천리’다. 그렇다면, 《력사사전》과 같은 ‘뻔한’ 체제홍보책자에 코를 박고 한 철을 보낸 남한의 한 서양사학자는 또 얼마나 아둔하고도 계면적인 인간인가.

북쪽의 《력사사전》이 돌리는 낡은 레코드판의 과열음 노래에 짜증이 난다면, 그와 동시대 남쪽에서 제작된 ‘대한니우스’ 필름을 되감아 감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 xx를 시찰하시고’로 시작되는 이 ‘검정필 문화영화’는 아마도 반공포스터 그리기대회의 수상작과 미풍양속을 헤치는 서양적(미국적?) 퇴폐주의의 상징인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장면을 눈요기로 제공해 줄 것이다. 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유신정권의 합법성과 역사적 의의를 훈육했던 중고등학교 사회윤리교과서를 복습하는 느낌은 어떻게 다를까. 필자가 말하려는 하는 요점은 ‘대한니우스’와 ‘국민교육헌장’이 남한의 1960-70년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갖는 것처럼, 《력사사전》 그 자체는 매우 소중한 사료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거칠게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지금 읽어보면) 역설적으로 웃기고(“전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수인 미제국주의”), 유치하고 억지스럽다(“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의 반동적 통치배들의 술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경포대, I-85쪽)고 할지라도 《력사사전》은 우리를 '60-'70년대 북한의 낯선 세상과 접속시켜 주는 터널이며 소통수단이다.

흔히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관찰하면, 《력사사전》은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가 팽팽히 양립했던 냉전체제의 한 가운데에서 숙성된 절대적인 위기상황의 산물이다. 이 사전이 집필되던 1960년대 중후반은 ‘웰남’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서양열강들의 식민지 중심축이 미국으로 교체되고, ‘카리브해의 위기’가 촉발한 이데올로기적 소용돌이에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휩싸이던 시대였다. 이처럼 전 세계를 제압하는 냉전의 유행이 결코 그림 속의 칼이 아니라 ‘붉은’ 심장을 노리는 현실적인 습격이 될 수도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북한은 1968년에 발생했던 ‘푸에블로 침략/납치사건’을 경험하면서 절실히 깨달았을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암초와 어뢰로 가득 찬 냉전의 망망대해를 헤쳐 갈 등대이며 나침반으로서 북한 역사가들은 《력사사전》을 간행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유물사관으로 그린 돛대를 높이 올리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도발하는 험한 풍랑을 넘어 공산주의의 완성이라는 저 ‘희망의 아침바다’를 향해 부단 없이 노를 저어야만 했던 북한식 ‘도전과 응전’의 절박한 역사관이 《력사사전》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각으로 되짚어 보면, 《력사사전》에 담긴 이분법적이며 교조적인 역사관과 세상 읽기는 더 이상 비정상적이지 않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냉전의 칼 날 위에서 춤을 추어야 한다면, 피아(彼我)의 구분과 이데올로기적 색깔 나누기는 직면한 생존의 문제이다. “모든 경계선은 위험하다. 지키지 않고 놔두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범주도 붕괴할 것이며 우리의 세계는 혼돈 속으로 해체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력사사전》에서 과감하게 행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물과 (역사)지식체제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것을 감찰한다는 것은 심각한 업무이다.” 모호한 회색지대에 방치된 모든 것들은 비겁과 배반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전에 등재된 모든 나라들은 ‘자본주의 국가’, ‘나토가입국’, 혹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로 명확하게 편이 갈라지고, 특정사건에는 ‘봉건제도 붕괴를 촉진시킨 폭동’ 혹은 ‘유럽최초의 부르주아 혁명’ 등의 확정적인 꼬리표가 부여된다. 이런 북한 특유의 ‘60년대-70년대 세계관을 단순히 ‘피해 망상적 역사의식’ 혹은 ‘강박관념 환자들의 집단광기’로 외면한다면, 그는 매우 한심하고도 역사인식이 빈곤한 역사가일 것이다.

‘과거가 우리 얼굴을 비쳐주는 거울’이라면, 《력사사전》이야말로 지나간 20세기 후반기가 만들어낸 ‘세계사적인 거울’이라고 필자는 평가한다. 왜냐하면 이 사전은 당시 북한지배층과 인민들을 지배했던 ‘망탈리테(집단정신자세)’를 일목요연하고도 일관적으로 증언해 주는 동시에, 냉전체제 유폐에게 사로잡혔던 세계사의 치열하고도 우울했던 한 국면(局面)을 생생히 비쳐주기 때문이다. 《력사사전》의 한 쪽 거울에 각인된 북한의 얼굴이 과잉하게 ‘주체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방향으로 일그러졌다면, 다른 쪽 거울에 반사되는 1960~70년대의 ‘지구사(Global History)’는 분쟁과 침략, 갈등과 공포로 가득 찬 비극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서로 영기고 어울리며 때로는 빛나갔던 ‘너’와 ‘나’의 진면목을 독창적인 앵글과 프레임으로 포착했다는 측면에서 《력사사전》이야말로 냉전체제가 제작·연출하고 양 진영의 모든 국가들이 공동 출연했던 ‘불후의 명작’ 중의 하나가 아닐까. 굳은 표정과 과장된 제스처, 단호하고도 신파적인 내레이션 등으로 상징되는 《력사사전》은 모든 것이 이데올로기로 환원되었던 ‘과거라는 이름의 가깝고도 낯선 나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기념비적 작품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출간된 지 한 세대가 훨씬 지난 21세기 초(2001년-2004년)에 그 개정판이 선보였다는 사실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철옹성처럼 견고해 보였던 《력사사전》도 시간이라는 비바람 속에서 보수공사가 필요했으리라. 그렇다면 새롭게 개정된 북한의 역사사전은 옛 고전의 복고풍 리바이벌일까, 아니면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려는 김정일 판 ‘개혁’과 ‘개방’의 예고편일까? 이 궁금증을 푸는 작업은 또 다른 다음 과제이다.